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저자기호표에 관한 연구

—특히 이재철씨의 논고를 중심으로—

장 일 세 *

< 목 차 >

- | | |
|-------------------------------|------------------------------------|
| 1. 서 언 | 분석적 합성식 기호의 결합에 대한 |
| 2. 도자기호의 목적 | 고찰 |
| 3. 우리나라의 저자기호에 있어서의 문자에 대한 고찰 | c. 발음성과 다의성에 대한 고찰 |
| a. 단순성과 간결성 및 전개성 | 4. 이재철씨의 저자기호와 필자의 저자기호의 배열에 관한 비교 |
| b. 한글의 음절문자와 이재철씨가 채택한 | 5. 결 언 |

1. 緒 言

筆者가 지금까지 펴 내거나, 또는 쓴 글에 대하여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副教授로 있는 李載喆氏가 많은 연구 끝에 여러 가지의 例示와 더불어 數次에 걸쳐 學術誌¹⁾에 論駁한 것은 關係分野의 發展을 위하여 매우 鼓舞的인 일이라 생각하는 동시에 筆者의 앞으로의 研究에도 많은 參考가 되는 일이므로 이재철씨에게 고맙게 생각도 하는 바이나, 이재철씨의 논고 가운데 순전히 學術的인 論駁이 아닌 모욕적인 言辭가 여러 군데에서 쓰여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이재철씨를 아끼는 사람의 하나로서, 그리고 같은 分野의 研究를

* 국립중앙도서관 지도협력과장.

1) 李載喆. 동양인명의 표목으로서의 형식론. 人文科學. 第18輯.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67年 12月. p. 65—92.

李載喆.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저자기호표의 연구: 한글의 구조상의 특성, 기입의 형식, 배열 표기법 문제 등과 관련한 고찰. 圖書館學. 第1輯. 韓國圖書館學會, 1970年 12月. p. 1—57.

李載喆.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 기호의 요건과 음절식 기호법 (syllabic notation)의 원리에 입각한 고찰. 人文科學. 第24. 5輯.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71年 5月. p. 221—245.

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써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學術的인 論爭이 아닌 人身攻擊에 끝난 감이 없지않아 참으로 섭섭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일일이 그런 곳을 다 찾아 대꾸하기에는 筆者의 時間이 아까울 뿐이므로 여기에서는 그중 한 두가지 만을 추려 그에 대한 筆者의 見解를 披瀝함으로써 그 논고를 읽은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재철씨는 圖書館學 第1輯²⁾에서 Cutter 저자기호표의 구조 방식을 모방한 우리 나라 저자기호표는 “...방법론에 있어서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며, 또 그것이 한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였다는 면에서 주체성을 잃은 소행이라고 비판을 아니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非難하고, 이어 “...복잡하고 전혀 조기성이 없는 저자기호표를 만들었다는 것은 결코 자랑스런 일이 못된다”고言及함으로써 高在昶氏³⁾ 李春熙氏⁴⁾ 및 筆者가 펴낸 저자기호표⁵⁾를 主體性を忘却한, 非愛國的인 저자기호표로 규정하여 前記한 세사람의 저자기호표에 대하여 最惡의 표현으로 非難하고, 이재철씨 자신이 펴낸 저자기호표⁶⁾가 “이보다 더 한 이상적인 구조론이 없다”⁷⁾라고 極口自讚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아연실색할 뿐이다.

筆者의 저자기호표에 관한 자세한 검토는 다음에 계속되는 章에서 논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省略하거니와, 이 표의 利用面에서의 優劣을 가리기 전에 단순히 모방하였다고하여 前記한 바와 같이 非難한 이재철씨의 心中과 意圖가 筆者로서는 理解가 가지 않는 동시에, Cutter의 저자기호표를 극구 찬양한 이재철씨 자신이⁸⁾한 미국의 도서관학자인 Harry Dewey의 말을 인용한 끝에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다”⁹⁾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

2) 이재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저자기호표의 연구. 圖書館學 第1輯. 前掲書, p. 11—12.

3) 高在昶. 韓國著者記號表. 서울, 韓國銀行調查部, 1954. (韓銀圖書分類法の 別添附錄)

—— 日本著者記號表. 서울, 韓國銀行調查部, 1954. (韓銀圖書分類法の 別添附錄)

4) 李春熙. 東洋著者記號表. 서울, 成均館大學校圖書館, 1960 [i.e. 1964].

5) 張一世. 張一世氏 韓國人著者記號表. 서울,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1961.

—— 張一世氏 東洋書著者記號表. 서울, 新書閣, 1964.

6) 이재철. 동서저자기호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1958. 이 밖에 제 6 표까지 나와 있음.

7) 이재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저자기호표 연구. 前掲書, p. 12 및 p. 56.

8) 이재철. 동서저자기호법의 연구. 도협월보, 1958년 7, 8월호에 실린 것을 披萃하여 따로 프린트판으로 내었다. p. 3.

9) 이재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저자기호표연구. 前掲書, p. 11.

수팽스러운 일이다. 그것도 이재철씨가 극구 찬양한 時期와 권위가 무너져 간다고 한 시기가 여러 해의 간격이 있다면 그동안 점차로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재철씨에 따르면 Harry Dewey의 글을 인용한 그 圖書는 1957年 出版된 것이고¹⁰⁾ 이재철씨가 찬양한 글은 1年이 늦은 1958년이고 보면 더욱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世界的으로 圖書館學者로서 有名한 분의 한사람이고 當時 런던大學 圖書館學科 教授이며, 1924年에는 印度의 圖書館學者인 Ranganathan을 길러 낸 바있는 Berwick Sayers氏의 著書 An introduction to library Classification 제 8 판에 보면¹¹⁾ Sayers氏도 Cutter의 저자기호를 “第一의 그리고 가장 苦心해서 만들어낸 저자기호표”(the principal and the most elaborate form of book-mark)라고 激讚을 아끼지 아니한 저자기호표를 일개 교수의 말에 따라 Cutter氏 자신까지에게도 모욕적인 言辭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이재철씨의 태도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다.

100年 아니라 1,000年前에 만들어진 것이라도 原理와 方法이 좋은 것은 우리들이 채택하여야 하며, 또 사실상 수 없이 채택되고 있는 것은 筆者가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

이재철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¹²⁾ 圖書記號法에서 저자기호가 아닌 受入順 또는 年代順記號가 일부 특수 도서관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수도서관에서의 일이고 아직도 일반 도서관에서는 Cutter 또는 Cutter-Sanborn이 쓰여지고 있고, 이재철씨가 인용한 Harry Dewey의 글에서 말한 “LC저자기호”가 널리 쓰여지고 있다는 아무런 證據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¹³⁾

이재철씨가 표현한대로 따른다면 소위 “분선적 합성식의 표”만이 반드시 한나라안에서 쓰여져야 할 理由도 없으며, “분선적 합성식의 표”가 “이상적

10) 이재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저자기호표연구. 前掲書, p. 5. 註10. 參照.

11) W.C. Berwick Sayers. An introduction to library Classification. 9th ed. London, Grafton, 1958. p. 64.

12) 이재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저자기호표연구. 前掲書, p. 3-4.

13) 이에 대한 統計같은 것을 筆者가 본 바는 없으나 LC저자기호가 Cutter 또는 Cutter-Sanborn 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되어가고 있다는 論文도 없다. 아직도 많은 圖書館學관계 圖書에는 여전히 Cutter의 저자기호가 계속 紹介되고 있다.

인 구조”에 의하여 되었다고 아무도 理論的으로 뒷받침해 주는 論文을 이제철씨 이외의 學者나 專門司書가 쓴 것을 筆者는 보지 못하였다.¹⁴⁾ 단지 前記한 Harry Dewey가 LC저자기호를 쓰라고 권장한 말이, 즉 이제철씨의 분석적 합성식의 표를 찬양한 것으로 이제철씨가 錯覺하고 있는 것은 매우 可笑로운 일이며, 이런 식에 의한 我田引水格인 해석으로 他人의 기호표마저 惡評하는 태도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론에서 한가지 더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철씨가 지적한 「簡易圖書記號法」에 대한 문제이다.

이제철씨는 그의 논고에서, 筆者가 추천한 簡易圖書記號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실고 있다. 즉, “張一世씨는(筆者註: 이제철씨는 筆者를 呼稱하는데 있어서 「張氏」라는 것을 「張一世氏」라는 것 대신에 상당히 여러곳에서 쓰고 있는데 이 문제도 考慮해 볼만한 일이다) 그것 (筆者註: 簡易圖書記號法을 말함)을 적용해 쓰는데 있어 원 고안자의 의도에 위배되는 상식을 벗어날 정도의 과오를 범하였다. 張씨는 동 저자기호법의 사용법 설명의 예시에 있어 표목은 한글로 표기해 주면서 저자기호는 로마자로 아래와 같이 매긴 것이다”¹⁵⁾라고 지적하고 筆者가 사용한 例示를 轉載하였다.(例示는 省略)

이제철씨는 筆者가 1959년에 著述한 圖書¹⁶⁾를 問題삼고 위에서 引用한 바와 같이 言及하였는데, 筆者는 그 圖書를 著述하던 當時, 즉 1959년까지에 나온 우리 나라 저자기호표에 대한 筆者의 見解로서 同圖書에서 “...몇개의 試案을 볼 때 아직 도서관에서 採擇하여 使用할만한 가치가 없다”¹⁷⁾고 지적하고 前記한 簡易圖書記號法을 추천하였던 것이다.

이제철씨는 같은 논고에서, 일본인 木寺清一씨가 고안한 簡易圖書記號法을 들어 小圖書館이나 學校圖書館에서 使用하기에 第一 適合한 것으로 추천하였다는데서 前記한 바와 같은 非難을 퍼붓고 “...원 고안자의 의도에 위배

14) 筆者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그러한 論文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제철씨 자신도 저자기호표에서 분석적 합성식의 표가 이상적이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傍證을 분류표에 대한 例를 든 것뿐 다른 論文을 引用하지 못했다.

15) 이제철.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 人文科學, 第24·5輯. 서울, 延世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71年 5月. p. 227.

16) 張一世. 學校圖書館運營法. 서울, 學校圖書刊行會, 1959. 201 p.

17) Ibid., p. 93.

되는 상식을 벗어날 정도의 과오를 범하였다”고 마치 犯罪者에 대한 問責을 하는 식의 言辭를 쓰고 있다.

이재철씨는 註記에서 木寺清一씨의 簡易圖書記號法에 대한 것을 引用하였는데¹⁸⁾ 그곳에서(註16) “...저자별 수입순 기입법으로서 저자명의 첫자를 문자로 따고 그 아래서 수입순 번호를 매겨 나가는 기호법이다. 그의 구체적 인용례는 동 鐵道圖書館의 「藏書目錄」(1929)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하였고, 다음 註記에서(註18) “木寺清一「簡易圖書記號法」의 사용법 예시에 보면 목록기입(표목)의 표기는 되어 있지 않으나 그의 배열은 ABC순으로 되어 있다(p. 120-121)”라고 하였다.

이재철씨가 引用한 것은 모두 틀림이 없는 사실인데, 이재철씨가 빠트린 중요한 사실은 引用된 鐵道圖書館 藏書目錄을 편찬한 張本人인 일본인 林靖一氏が 어떤 目錄을 채택하였는지를 確認하지 아니한 것과 역시 그이가 引用한 木寺清一氏의 도서기호 사용법에서 표기에 로마자로 되어있지 아니한 것도 로마자를 사용한것으로 이재철씨 마음대로 決定해 버린 사실이다.

林靖一氏は 그의 著書에서¹⁹⁾ 「著者名을 主眼으로 한 圖書記號法」을 說明하는 가운데 著者が 引用한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재철씨가 이야기하는 “상식을 벗어날 정도의 과오”를 林靖一氏도 범하고 있다하겠는가?

만일 林靖一氏의 著書가 近 50年前인 1925年度라는 것에 異議를 提起한다면 새로운 것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데, 그 예는 彌吉光長氏 等編에 의한 「도서관 핸드북」²⁰⁾에도 나타나 있다는 것을 參考로 이야기 해 두고 싶다.

筆者는 여기서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추어 냄으로써 筆者가 한 일에 대한 正當性을 主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人間은 어려서부터 자라는 동안 항상 배우고 닦아서 점점 完熟한 人間으로 향하는 것처럼, 學問도 해를 넘기고 닦고 배우는데 따라 向上과 進歩가 있는 것이다. 지난 날에 불행했던 여러가지의 生活方式이 電氣, 깨스, 라디오, TV, 自動車, 飛行機, 電話 등등이

18) 이재철,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문제에 대하여, 前掲書, p. 227-228.

19) 林 靖一, 圖書の整理と利用法, 東京, 大阪屋號, 大正 14(1925) p. 118. 실제로 목록기입 예가 여기저기 실려있다.

20) 彌吉光長 等編, ライブラリー 핸드ブック, 東京, ダヴィッド社, 1964. p. 40 및 p. 58.

생겨남으로써 훨씬 向上된 것과 마찬가지로 圖書館學에 있어서도 연구가 계속됨으로써 보다 편리한 圖書整理法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筆者가 1961년에 처음 만들은 韓國人著者記號表가 그렇고, 1964년에 만들어진 著者記號表가 역시 그런 所産이다. 이재철씨의 저자기호표가 처음 만들어진 1958년에서부터 오늘날까지에 이르는 동안 몇가지가 더 만들어 졌는데 그것 역시 그러한 所産일 것이다.

앞에서 몇가지만을 들어 이재철씨의 논고에서 언급한 것에 대한 해답을 하였지만, 筆者의 목은 것을 들추어 이야기한 이재철씨가 자신이 만들었다는 저자기호표의 소위 제1표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아직 교재로 밖에 쓰이지 않고 있는 제3,4 및 제5,6표만을 들어 筆者의 저자기호표와 比較하고 있는 것은 제1표의 결함을 自認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의 결함만을 들추어 냄으로써 자신의 결함을 음폐할려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

2. 圖書記號의 目的

著者記號法에 대한 것을 論하기 전에 圖書記號의 目的을 확실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그 理由는 도서기호가 갖추어야할 基本要件을 잘못 理解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Margaret Mann 이나 Susan Grey Akers 는 圖書記號에 관하여 모두 그의 著書에서 Barden의 “圖書記號”를 引用하고 있어서²¹⁾ 그 本の 論據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는 그의 著書에서 Melvil Dewey가 규정한 청구기호의 目的, 즉 “도서를 찾거나 또는 대출하기 위하여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쫓거나,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말을 引用하고, 계속하여 분류기호 외에 도서기호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²²⁾

1. 서가상에서 도서를 순서있게 배열하기 위하여
2. 하나 하나의 도서를 위하여 간단하고 명확한 청구기호를 마련하기 위하여

21) Margaret Mann.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the Classification of books. 2nd ed. Chicago, ALA, 1943. p. 86.

Susan Grey Akers. Simple Library Cataloging. 4th ed. Chicago, ALA, 1954. p. 20.

22) Bertha R. Barden. Book numbers; a manual for students with basic code of rules. Chicago, ALA, 1937. p. 9.

3. 서가상에서 특정한 도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4. 도서를 이용자가 대출하는데 필요한 기호를 마련하기 위하여
5. 서가에 도서를 재배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6. 접서를 할 때 도서의 빠른 확인을 돕기 위하여

한편 도서기호의 機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다. 즉 “도서기호는 같은 類안에 있는 다른 도서와 관련된 적절한 위치에 새로 古類에 들어오는 도서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²³⁾라고 말함으로써 Cutter가 규정지은 것과 동일한 견해를 말하고 있다.²⁴⁾

그런데 그와 같은 圖書記號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이상적인 기호로서는 Sayers도 일반 기호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²⁵⁾ 단순성, 간결성 그리고 신속성을 들 수 있는데, 이재철씨와 같이 분류기호로서의 기본요건을 도서기호에도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은²⁶⁾ Barden이 지적한 바있는 분류기호와 저자기호의 차이를 확실히 理解하지 못함에서 오는 결과이고 또 Dewey가 말 한바 “속히 그리고 정확하게”라는 도서기호의 基本要件을 曲解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疑訝스러운 일은 이재철씨가 分類法과 著者記號法을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재철씨는 그의 논고에서 “저자기호법이 넓은 의미에서 분류법의 일환에 속하는 한, 그 기호표의 구조도 가급적 분류표의 일반 구조원리를 적용해서 만드는 것이 合理的인 것이다”라고 하였다.²⁷⁾ 또 한편 같은 논고에서 “...이 합성식 方式은 1957년 英國의 Dorking에서 열렸던 「국제분류학연구회」(International Study Conference on Classification for Information Retrieval)에서도 6개 重要 會議事項(main points of agreement) 중의 첫째가는 항목으로 채택하여, 全世界 分類學界에 널리 권장되고 있는 원리이기도 한 것이다. 동 分析的 合成式 방식의 표 구조론이 어느 경우이고 다 적용되는 절대적인 理論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마는, 한글을 記入語

23) Ibid., p. 5.

24) Margaret Mann. Op. Cit., p. 86.

25) W.C. Berwick Sayers. Op. Cit., p. 55.

26) 이재철.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기호 삼기문제에 대하여. Op. Cit., p. 223—224.

27) 이재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연구. Op. Cit., p. 7.

(표목)의 문자로 잡아 이를 기계적으로 배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자 기호법으로는 이보다 더한 理想的인 구조론이 없다고 본다”²⁸⁾라고 하였다.

이 말은 도대체 이재철씨가 분류법과 도서기호의 目的을 理解하고 있는지를 疑心케한다. 이재철씨의 理論을 따른다고 假定한다면, 소위 LC, SC, BC, DDC, KDC 등의 列擧式方法(enumerative system)에 의한 分類表를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는 圖書記號도 列擧式方法을 쓰는 것이 合理的이고, Colon Classification 과 같은 分析的 合成式方法(Alytico-synthetic system)으로 된 분류표를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는 분석적 합성식 저자기호표를 사용하여야 合理的이라는 말이 된다.

“分類란, 人間探究의 여러 主題 또는 여러 面에서의 人間生活에 관한 記述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體系의인 表안에서 圖書를 그 主題의 類似性 또는 相互間의 關聯性에 따라 集合의으로 그 분류표의 적절한 곳에 배정하는 것”²⁹⁾이라고 Merrill은 지적하였고, ALA는 “主題 또는 形式에 따라 圖書 및 기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體系의인 表”³⁰⁾라고 定義하였으며 Sayers도 역시 內容이 비슷한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³¹⁾

한편 저자기호를 포함한 도서기호는 ALA가 규정하기를 “같은 分類記號를 가지는 圖書들을 알파벳 순에 따라 배열하기에 쓰여지는 記號로서 文字와 숫자를 섞은 것”³²⁾이라고 하였고, Margaret Mann은 그의 저서에서³³⁾ Cutter의 사전체 목록규칙에서 “같은 분류기호를 가지는 모든 책의 한책 한책을 區別하는데 쓰여지는 記號”라고 함으로써 圖書記號의 性格을 뚜렷이 하고 있다.

위에서 引用한 分類에 대한 定義와 圖書記號에 대한 定義를 比較하여 볼 때 分類法과 圖書記號法은 아무런 關聯性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위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가 열거식 분류표보다 나았다고 假定하더라도³⁴⁾

28) Ibid., p. 56.

29) William Stetson Merrill. Code for Classifiers. 2nd ed. Chicago, ALA, 1939. p. 1.

30)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ommittee on Library Terminology.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Chicago, ALA., 1943. p. 30.

31) W.C. Berwick Sayers. Op. Cit., p.8.

3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ommittee on Library Terminology. Op. Cit., p. 16.

33) Margaret Mann.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the Classification of books. 2nd ed. Chicago, ALA, 1943. p. 86.

그것은 분류표의 문제이지 圖書記號로서의 著者記號가 분석적 합성식이어야 열거식보다 나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하물며 분류표와 저자기호가 아무런 關聯性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인데 不拘하고 分類表와 것드려서 主張한다는 것은 하나의 詭辯에 지나지 못한 것이다.

이재철씨는 自己의 그러한 主張이 詭辯임을 스스로 그의 같은 논고에서 實吐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즉 그는 “미국의 도서관학자 Harry Dewey교수는 저자기호에 대한 언급에서 “Cutter기호를 채용하고 있는 도서관은 그것을 당장 폐기하고, LC저자기호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권고하고, 그 이유로서 “LC기호는 표가 간단하여서 Cutter표의 경우와 같이 복잡한 표를 일일이 들춰볼 필요가 없으며,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다고 이재철씨는 인용하였다.³⁵⁾

Harry Dewey 교수의 말을 100% 믿는 것으로 하고 (이재철씨는 Harry Dewey 교수의 말을 救世主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主張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는 LC저자기호를 권장한 理由로서 첫째는 LC기호표가 「간단」하다는 것과, 둘째는 따라서 「시간 절약」이 된다는 두가지 점을 들었을 뿐이다. 그는 모든 도서관에서 소위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를 쓰고 있으니까 LC저자기호표를 쓰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이재철씨는 수입순 도서기호 및 연대순 기호법이 최근에와서 점차로 채택되고 있다고 하였다.³⁶⁾

이러한 증거는 이재철씨가 주장하는, 분류표와 저자기호표가 구조원리를 같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全的으로 無視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이재철씨 자신이 그의 논고에서 證明하고 있다. 그러므로 분류표와 도서기호 또는 저자기호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 부터가 잘 못된 것이다.

아마도 이재철씨는 저자기호법이 넓은 의미에서 분류법의 일환에 속하는 한 그 기호표의 구조도 가급적 분류표의 일반 구조원리를 적용해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理由는 저자기호가 일부 분류표 안에서

34) 이 論文에서는 저자기호에 관련된 문제에 국한하는 관계로 분류표에 관한 문제는 留保하였다. 따라서 假定은 어디까지나 假定임을 留意하기 바란다.

35) 이재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연구. Op. Cit., p. 111.

36) Ibid., p. 3-4.

쓰여지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Sayers도 지적한것 처럼³⁷⁾ 특수한 주제 안에서 저작물을 저자명순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쓰이고 있는 것으로서 Mann 女史의 말대로 한다면 “LC分類記號의 한 部分으로서 圖書記號가 쓰이고” 있는 것이다.³⁸⁾ 그러므로 LC분류표에 쓰인 圖書記號는 “分類記號의 一部”로서 쓰인 것이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分類記號와 圖書記號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斷定할 수는 없는 것은 물론, 전연 목적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재철씨 주장대로 저자기호법이 분류법의 일환에 속한다면 어떤 특수한 분류항목 뿐만아니라 모든 분류항목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Barden은 그의 著書에서 말하기를 “도서기호가 분류기호와 다른 점은 도서기호가 固定的인데 비하여 분류기호는 相關의이다”³⁹⁾라고 喝破함으로써 도서 기호와 분류기호의 特性을 참으로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LC기호표가 이재철씨의 기호표와 同一한 것으로 錯覺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LC저자기호가 이재철씨가 이야기하는 분석적 합성식입에는 틀림없고 이재철씨의⁴⁰⁾ 저자기호도 분석적 합성식입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LC기호가 가지는 특성과 同一하다는 主張은 成立될 수 없다. 그것은 그야말로 알파벳과 한글의 차이이고 또 LC기호와 이재철씨의 저자기호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표시방법에서의 차이때문이다. 이 문제는 다음에 계속되는 章에서 筆者의 저자기호표와의 비교에서 詳述하겠으나, LC기호와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저자기호의 첫자가 LC는 알파벳중 한자만 (즉, A, D, K 등) 쓰는데 비하여 이재철씨는 기본기입으로 하는 표목의 첫자(즉, 김, 박, 또는 書名일 경우는 평, 앞 등)를 쓴다는 점에서 두가지가 同一한 性格을 가진 것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따라서 LC기호의 長點이 그대로 이재철씨 저자기

37) W. C. Berwick Sayers. Op. Cit., p. 105.

38) Margaret Mann. Op. Cit., p. 94.

39) Bertha R. Barden. Op. Cit., p. 5.

40) LC저자기호는 姓첫자(예 : 姓이 Adams일 경우는 A字)는 그대로 표시하고 다음 字, 즉 위의 例인 경우는 d字를 기호化하여 사용하는 方式이다.)

호의 長點이 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단지[분석적 합성식이라는 점에서 同一하므로 同一한 長點을 가지고 있다고 錯覺하거나 혼자서 決定해 버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다.

3. 우리나라의 저자기호에 있어서의 文字에 대한 고찰

Barden은 그의 著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현재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도서기호 제도의 요긴한 要素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이루어져있다.

1. 저자명을 대표하는 저자명의 첫자와 그에 뒤따른 숫자. 이것은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기 위하여서이다.
2. 숫자는 십진식으로 배열되는데 그것은 이미 사용된 두가지 결합된 기호 사이에 들어 가야할 새로운 저자명의 삽입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십진식 배열은 또한 대도서관 및 소도서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신축성을 주는데, 그 이유는 기호를 작은 類에서는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⁴¹⁾

저자명에 의한 알파벳순 배열을 위하여 이것을 기호로서 채택하기로 한 맨 첫사람은 Schwartz氏로서 1871年이었다. 그러나 숫자를 십진식으로 하고 이것을 저자명 첫자에 결부시켜서 쓰기로 한 것은 Cutter氏였다.⁴²⁾

하여간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저자기호의 原理는 위에서 지적한 것 이상으로 발전한 것이 없고 여전히 저자의 姓을 표시하는 첫자와 숫자의 결합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러한 原理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朴奉石氏 이후의 모든 저자기호표가 다 그러하거니와, 問題는 한글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서 著者名 또는 標目的 첫자를 저자기호로서 채택하는데 있어서 음절철한자를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음을 단독으로 채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제철씨는 그의 논고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장황하게 논하고, 결과적으로

41) Bertha R. Barden. Op. Cit., p. 7.

42) Ibid., p. 5—6.

로 음절철 한자(예 : 김, 박, 최, 황 등)를 채택하는 것이 나왔다고 결론짓고⁴³⁾ 자모 단위의 기호법을 취한다는 것은 년센스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였다.⁴⁴⁾

그런데 이재철씨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몇가지의 理由를 그의 논고에서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發音性(pronounceability)이 있다.

둘째, 多意性(ambiguity)이 없다.

셋째, 打字化할 수 있다.

넷째, 형태적 및 발음면에서 簡略性(brevity)이 있다.

다섯째, 復號化(decode) 할 수 있다.

여섯째, 음절철의 한글 배열이 로마자 배열보다도 빠르고 외우는 것도 수월하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理由를 들고, 자모 한자만을 기호로 채택하는 것보다 음절철 한자를 채택하는 것이 우수하다고 단정하였다.

이재철씨는 여러 가지의 論文과 실례를 例示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재철씨가 크게 실수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가장 基本的인 圖書記號의 目的, 즉 앞에서도 引用한바 있는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배열하거나 찾기위한 것”이 圖書記號의 目的임을 忘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目的달성을 目的으로 한 圖書記號이므로 Sayers가 말한 단순성, 간결성 및 신축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재철씨가 主張하고 있는 음절철 한자를 채택하는 理由에는 그와 같은 基本的인 것을 포함하지 않고 基本的인 것과는 아무런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서 자기 주장에 대한 正當性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事理에 어긋나는 일까지도 正當化하려고 억지 理論을 전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참으로 말할수 없는 비애를 느낄 뿐이다.

하여간 이재철씨가 主張하고 있는 上記문제에 대한 것을 몇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檢討하기로 한다.

a. 단순성과 간결성 및 展開性

43) 이재철.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 Op. Cit., p. 228—245.

44) Ibid., p. 245.

Sayers가 지적한 기본적인 도서기호로서의 要素中에서 단순성과 간결성 및 展開性에 대한 것을 먼저 考慮하기로 한다.

이재철씨는 그의 논고에서 자모로의 한자와 음절철 한자와를 비교하면서 말하기를, 음절철 한자를 배열 하는 것 보다 자모 한자를 배열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⁴⁵⁾

이러한 사실을 이재철씨가 인정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모로의 한자(예 ㄱ, ㄴ, ㄷ 등)가 음절철 한자(예 : 박, 권, 황 등)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것을 뜻 한다. 이것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쓰여졌거나 인쇄된 문자의 획수를 보면 누구나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 문제는 저자기호법을 論하는데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문제이다. 그 理由는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도서기호의 사명은 “신속과 정확한 배열과 찾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철씨도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否定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자모 한자의 배열이 훨씬 빠르다고 自認을 하면서도 기호류음의 전체면에서 볼 때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 理由로서는 “자모 한자를 취할 경우에는 음절철 한자를 취할 때보다 숫자기호가 한두자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서로 상쇄하면 별반 차이가 없어진다.”⁴⁶⁾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論理에 합당하지 않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로서 증명할 수 있다.

가령 김과 ㄱ을 비교하여 보기로 하자. 이재철씨가 그의 논고에서 자주 인용한 김씨를 풀어보면 「ㄱ」 「丨」 「口」의 석자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筆者가 주장하는 자모 한자, 즉 「ㄱ」에 비하여 「丨」 「口」의 두자가 많은 심인데, 이재철씨는 자모 한자를 취하는 筆者의 저자기호로서는 숫자가 한두자 더 많으므로 「丨」 「口」의 두자가 더 많더라도 결국 상쇄된다고 하나 筆者의 저자기호는 일반적으로는 자모 한자와 숫자 석자 또는 두자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이재철씨의 저자기호는 음절철 한자 외에 최소 두자 내지 석자

45) Ibid., p. 241 & 244.

46) Ibid., p. 241. & 244.

의 숫자를 곱하여 써야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筆者의 기호가 이재철씨의 기호보다 숫자 한자 내지 두자가 더 짧다는 것을 뜻한다.⁴⁷⁾

좀 더 이재철씨의 저자기호표를 세밀히 살펴보면 저자명 또는 표목을 기호화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 그가 주장하는대로 첫자는 음절철 한자를 따고 다음자(인명일 경우는 이름 첫자)를 숫자로 기호화 할 경우에 다행히 그 자가 단순히 子音과 母音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면 그이의 제 1표를 따를 경우 숫자 두자리로 될 수 있으나⁴⁸⁾ (예 : 김치옥일 경우 치字는 그이의 제 1표에 따르면 89가 된다) 이재철씨가 이야기 한 대로 “제 1표가 통계성을 얼마간 결하여 기호의 배당이 제 2표 보다 공평치 못하다”는⁴⁹⁾ 말에 쫓아 제 2표에 따른다면 치字의 숫자기호는 그나마 819가 되어버리게 되어⁵⁰⁾ 기호가 길어지게 되는데, 이름의 첫자가 子音+母音+子音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즉, 예를 들면, 김 철암과 같이 철字를 제 2표로 기호화하는 경우는 8133이 되어 결국 ㄱ | ㅁ + 8133 이. 되므로 기호수로는 7단위가 된다.

이와 같이 길어지는 기호를 짧게 하기 위하여 이재철씨는 원칙적으로 이름의 첫자 중에서 子音과 母音 한자식만을 기호화 해주는 방법, 즉 예를 들면 김동명인 경우 동字中 ㄷ과 ㅁ만을 記號化해주고 있다.⁵¹⁾ 그러나 앞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은 철字인 경우는 그분의 제 2표에 따를 경우 부득이 숫자 셋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기호가 짧아질 수도 없고, 두자를 따자니 결국 子音+母音+子音으로 되어있는 모든 이름의 첫字中에서 子音과 母音만을 숫자화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실제로 저자기호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위에서 예로 들은 김동명인 경우, 다시 말하면 동명 뿐 아니라 ㄷ을 첫소리로 하는 모든 이름의 첫자(편의상 그렇게 설명하나 표목으로

47) 張一世. 張一世式 東洋書著者記號表. 서울, 新書閣, 1964. 이표는 자음 14자중 ㄱ, ㄴ, ㄷ 및 ㅍ을 제외한 나머지 10자만이 숫자 세자리를 쓰고 있고, 전기한 4자는 숫자 두자리만을 취하고 있다.

48) 이재철. 동서저자기호법의 연구. Op. Cit., p. 13.

49) Ibid., p. 28.

50) Ibid., p. 16.

51) Ibid., p. 32.

쓰이는 것의 들쭉자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다)가 ㄷ+母音+子音으로 되어 있는 것 전부가 위에서 설명한 모순을 가지게 된다.

다음에 실례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筆者의 저자기호중에서 姓이 김으로 되어 있는 것중에서 이름 첫자가 ㄷ으로 시작되는 部分과 여기에 이재철씨의 저자기호표 제2표에 해당되는 기호를 대조적으로 매겨 보면 다음과 같다.

張一世表의 區分	張一世表의 저자기호	이재철씨 표 제2표에 따 른 저자기호
김 달	ㄱ 692	김 221
김 대 바	ㄱ 693	김 222
김 대 오	ㄱ 694	김 222
김 대 하	ㄱ 695	김 222
김 덕 사	ㄱ 696	김 223
김 덕 아	ㄱ 697	김 223
김 덕 자	ㄱ 698	김 223
김 덕 형	ㄱ 699	김 223
김 도 아	ㄱ 711	김 225
김 동	ㄱ 712	김 225
김 동 사	ㄱ 713	김 225
김 동 식	ㄱ 714	김 225
김 동 옥	ㄱ 715	김 225
김 동 차	ㄱ 716	김 225
김 동 화	ㄱ 717	김 225
김 두 아	ㄱ 718	김 227
김 득	ㄱ 719	김 22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筆者의 表에서는 17개로 세분되어 있는 것이, 이재철씨가 주장한, 통계성에서 제1표보다 공편한 제2표를 채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여섯가지로 밖에 세분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나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子音+母音+子音中에서 마지막 子音을 기호화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재철씨가 예시한 바와 같이⁵²⁾ 중복되는 기호를 없이하기 위하여 전개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기호가 될 것이다.⁵³⁾

標	目	이재철씨의 제2표와 이를 전개한 것 또는 이름 첫자의 받침을 기호화한 것	이재철씨의 제1표에 따른것(전개안한것)
김	달	김 221	김 221
김	대 바	김 222	김 222
김	대 오	김 2223	김 222
김	대 하	김 2228	김 222
김	덕 사	김 2231	김 223
김	덕 아	김 22313	김 223
김	덕 자	김 22317	김 223
김	덕 행	김 22319	김 223
김	도 아	김 225	김 225
김	동	김 2256	김 225
김	동 사	김 22562	김 225
김	동 식	김 22565	김 225
김	동 욱	김 22566	김 225
김	동 차	김 22567	김 225
김	동 화	김 22568	김 225
김	두 아	김 227	김 227
김	득	김 228	김 228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숫자만도 다섯자리나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전체의 저자기호는 ㄱ | ㅁ + 22567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여덟자의 저자기호가 생기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도否認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재철씨

52) 이재철. *Op. Cit.*, p. 32.

53) 저자기호를 展開할 경우에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십진식으로 전개하게 되므로 반드시 筆者가 예시한 바와 꼭 같은 기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대부분의 경우(두자리 숫자기호로서) 만족스러이 개별화된 기호를 얻게 되고 배열도 용이하다”⁵⁴⁾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예시로 보아 단순성과 간결성 및 展開性에서 이재철씨 표가 얼마나 뛰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만일 앞에서 예시한 여러 성명의 기호화 한 것을 이재철씨가 연구한 전개 방법⁵⁵⁾ 즉, 이름 첫자에 받침이 없을 때 0을 附記하고 다시 그 다음자의 첫소리에 의하여 記號를 매긴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성	명	이재철씨가 고안한 전개방법에 따른 저자기호
김	대 바	김 22204
김	대 오	김 22206
김	대 하	김 22209

이것을 보면 展開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記號가 이렇게 길게 되어서는 記號로서의 특성이 없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너무 길어져서 記號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재철씨는 그이의 분석적·합성식 구조로 이루어진 표의 일부와 筆者의 열거식 표의 일부를 對比하면서 분석적 합성식 표가 展開性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實證하기 위하여 조씨와 박씨에 대한 부분을 게재하였다.⁵⁶⁾

이 표는 이재철씨표와 筆者의 표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매우 흥미있는 것인데 그 표중에서 참고에 필요한 일부분을 다시 여기에 인용한다.

(※이재철씨가 인용한 것중 李春熙선생표는 편의상 인용하지 않았다)

張	一	世	표	이	재	철	3·4	표	이	재	철	5·6	표
조	일		672	조	이		69	조	이			68	
	재		674										
	정		676	조	자		71	조	자			72	
	정오		678		재		72		재			73	
					저		73		저			74	

54) 이재철.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 Op. Cit., p. 240.

55) 이재철. 동서저자기호법의 연구. Op. Cit., p. 33.

56) 이재철. 구조표에 입각한 한국저자기호표연구. Op. Cit., p. 13—16.

조 종나	682	저	74	조	75
주	684	조	75	주	76
진	686	좌	76	즈	77
창사	688	주	77	지	78
		즈	78		
조 칭	692	지	79	조 차	82
타	694			처	83
하	696	조 차	81	초	84
현	698	처	82	추	85
		초	83	치	86
조 흥	712	추	84		
존 가구	714	츠	85	조 카	87
		치	86	타	88
				파	89
		조 카	87		
		타	88	조 하	92
		파	89	해	93
				허	94
		조 하	91	호	95
		해	92	후	96
		허	93	흐	97
		허	94	히	98
		호	95		
		화	96		
		후	97		
		흐	98		
		히	99		

박씨편은 아래와 같다.

張 一 世 표	이 재 철 3·4표	이 재 철 5·6표	
박 득	246	박 드	27
만	248	디	28
박 명	252	박 마	31
명숙	254	매	32
명자	256	머	33
		머	34

명화	258	며	34	모	35
		모	35	무	36
박 문	262	꽂	36	므	37
문자	264	무	37	미	38
민	266	므	38		
버	268	미	39	박 바	42
				배	43
박 병나	272	박 바	41	버	44
병아	274	배	42	보	45
병하	276	벼	43		
북	278	벼	44		
		보	45		
박 봉	282				

이재철씨는 이상과 같은 對比表를 인용한 다음, 다음과 같이 더 설명하였다. 즉 “...우리나라 250종의 姓중에서 그 순위가 3위(朴)와 6위(조씨)에 드는 姓을 필자(이재철씨를 말함)의 표를 가지고 열거식으로 전개하였을 때도 上記 예에서 증명하듯이 일부러 열거해 놓은 張一世표와 李春熙표에 맞먹는 구분성을 갖는 것이다”⁵⁷⁾라고 하였다.

통계에 관한 것은 바로 다음 項에서 자세히 지적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거니와 筆者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引用한 표를 자세히 보면 두가지의 특성을 發見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이재철씨 표에 있어서 조씨의 경우나 또는 박씨의 경우나를 막론하고 실제적으로 성명 빈도에는 관계 없이 이름 첫자의 子音문자 別로 아홉개 이상으로 展開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재철씨표중 조자, 조하, 그리고 박마 部分참조)과, 그와 반대로 筆者표를 보면 이름(姓이 아님) 첫자의 자음別로 그 展開數가 일정하지 않은 점(筆者表중 조씨의 경우 이름첫자가 ㅈ으로 된 것은 6으로 ㅊ으로 된 것은 불과 두개로, 박씨의 경우 이름 첫자가 ㅁ으로 시작된 것은 8개등으로 전개됨)을 들 수 있다.

바로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표 가운데서 그 두가지의 큰 차이가 각기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서 중요한 뜻을 內包하고 있다.

57) Ibid., p. 16.

다음에 예시하는 박씨표중의 일부를 보면 더욱 뚜렷하게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써 표 전체가 그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있는 것은 물론이다. 편의상 이재철씨표는 3·4표를 사용한다.

그 理由는 3·4표나 5·6표가 그리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張 一 世 표		이 재 철 3·4 표	
박 양	368	박 아	61
		애	62
박 어	372	어	63
연 아	374	여	64
영 가	376	오	65
영 라	378	와	66
		우	67
박 영 선	382	으	68
영 순	384	이	69
영 완	386		
영 개	388		
박 영 차	392		
영 흥	394		
우 자	396		
우 자	398		
박 왈	412		
용 나	414		
용 성	416		
용 자	418		
박 우	422		
운	424		
원	426		
원 아	428		
박 유	432		
윤 사	434		
은	436		
은 어	438		
박 응	442		

의	444
의 아	446
인 라	448
박 인 승	452
인 타	454
일 아	456

이 표는 박씨로서 이름의 첫자가 ㅇ(이응)으로 된 筆者의 저자기호와 이재철씨의 저자기호를 對比한 것이다.

筆者표는 32개로 展開된데 비하여 이재철씨표는 역시 아홉개로 밖에 區分되어 있지아니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이지만 이재철씨표는 성명 빈도 통계에서 나온 기호가 아니라 단순한 문자의 합성에 의한 기준이므로 아홉 이상 기호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實證된 것이고, 筆者의 표는 姓名의 빈도 조사에서 온것이므로 많이 쓰이고 있는 성명에서는 많이 展開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앞에서 인용한 이재철씨의 말을 되색일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筆者의 표와 이재철씨의 표는 그분이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맞먹는 區分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재철씨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人口의 20%이상이 김씨이고 약 16%가 이씨 姓을 가지고 있는데⁵⁸⁾ 이재철씨 표에 의하면 역시 김씨나 이씨 아래에서도 子音에 따라 아홉가지로밖에 區分되지 못하지만 筆者의 표에 의하면 어떤 子音문자 아래에서는 불과 두개(예 : 츠을 첫소리로 하는 이름)밖에 區分되어 있지 않으나 빈도가 많은 것, 예를 들면 이름(姓이 아님) 첫소리가 ㅇ(이응)으로 시작되는 것은 무려 60개로 展開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즉 筆者의 표는 빈도 수에 따라 合理的으로 展開되어 있어서 많이 쓰이는 곳에서 많은 區分性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實證하고 있는 反面, 이재철씨의 표는 실제로 展開가 필요한 곳이던지 아니던지를 不問하고 꼭 같이 아홉가지로 밖에 展開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58) 韓國姓氏大觀, 崔 德教 李 勝羽 共編. 서울, 創造社, 1971. p. 47 & p. 157.

그러므로 區分數에 있어서 이재철씨가 주장하듯이 筆者의 표는 불과 4,455로 되어 있으면서도 合理的으로 展開되어 있어서 모두가 적절하게 活用되는 반면, 이재철씨표가 158,600이나 되는 區分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대부분이 活用性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단순성과 간결성에서 한가지 더 첨가하여야 할 것은 打字문제이다. 이재철씨는 “쓰기 쉽고 타자하기 쉬울 것”을 그의 논고에서 이야기 하였는데⁵⁹⁾ 이 점은 筆者도 全的으로 同感이다. 단순성과 간결성이 生命인 저자기호이므로 역시 쓰기 쉬워야하고 打字하기도 쉬워야함은 물론이다.

먼저 쓰는 것을 고려한다면 음절철문자를 쓰는 것과 자음 문자를 쓰는 것은 比較를 할 필요가 없으리만치 子音文字가 빠르고 정확하다. 速度에 있어서는 子音文字는 음절철 문자에 비하여 약 3배가 빠르고, 정확성에 있어서도 比할 바 없다.

打字에 있어서도 역시 子音文字를 打字하는 速度가 음절철문자보다 3배이상 빠르다. 그런데 이재철씨는 한글타자기는 음절철로 모아 쓸 것을 전제로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字母가 독립적으로 숫자와 연결해서 쓰일 때 그의 불꽃이 또한 문제”⁶⁰⁾라고 하여 불꽃이 말하자면 흉하고 균형이 맞지 아니 할것을 염려하였는데, 만일 母音文字와 숫자를 연결하여 쓴다면 다음과 같이 이재철씨 말대로 불꽃이 문제이다.

ㄴ 252

ㄷ 35

ㄹ 67

ㄷ 875

그러나 子音文字와 숫자를 연결하여서 사용할 경우는 위에서 例를 든 母音文字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매우 균형이 잡히고 명확하게 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불꽃도 나뻐지 않아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재철씨는 한글의 ㅇ(이응)자와 로마자의 O(오)자와의 區別을 현재의 타자기로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을 매우 염려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는

59) 이재철.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 Op. Cit., p. 224 & 235.

60) Ibid., p. 235.

하나도 문제거리가 되지도 않는다.

筆者가 美國에서 도서관학을 공부할 때의 일이지만 로마자 L字의 筆記體는 아라비아 숫자 1字와 같으므로 저자기호 다음에 오는 저작기호로서 L字를 小文字로 표시할 때에는 특수하게 조각된 筆記體인 l字를, 그리고 O字의 筆記體로 O를 타자기에 끼워서 쓰고 있는 것을 보았고, 각괄호(bracket) 역시 필요치 아니한 글자를 빼어 버리고 그 대신에 부착시켜서 쓰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筆者가 梨花女大에 있을 당시 역시 필요한 活字를 打字기에 부착시켜서 사용하였다.

타자기가 도서관에서의 도서정리용으로 제작된 특수한 것이 아닌 이상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方法에 따라 다소의 손질을 하여서 써야한다. 그렇게 하는때는 큰 費用이 드는 것도 아니므로 어느 도서관에서나 손쉽게 할 수 있다.

한편 打字기에 의한 음절철문자와 역시 타자기에 의한 子音문자와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데,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速度는 비교할 바가 되지도 않으며, 볼꼴에 있어서도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子音문자가 훨씬 명확하고 확실하다.

子音문자	음절철문자
ㄱ	권
ㄴ	남
ㄷ	답
ㅁ	뮌
ㅇ	왕
ㅎ	홍

b. 한글의 음절철문자와 이재철씨가 채택한 분석적 합성식 기호의 결합에 대한 고찰

이재철씨는 그의 논고중 한글의 특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음절철로 되어 있는 우리 글의 특징을 길게 나열한 뒤 음절철에 의한 우리 글 한자 한자의 區分 수를 인용하여 1,259字 임을 말하고 있다.⁶¹⁾

61) 이재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 연구. Op. Cit., p. 17.

그리고 그이는 음절철로 되어 있는 우리 글의 짝막성에 대하여 이의 長點을 높이 들고 있다.⁶²⁾

이 두가지는 매우 흥미 있는 것으로서 저자기호로서의 特性和 圖書記號로서의 基本要件에 절대적으로 관계되는 것이다. 즉,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열하거나 찾아야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재철씨는 그의 논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 제 2 표상의 숫자기호에 의한 구분수

$$14\text{자음기호} \times 9\text{모음기호} = 126$$

(나) 음절철의 한글 한자에 의한 구분수

$$\text{문교부조사} \quad 1,259\text{자}$$

(다) 따라서 문자기호 하나에 표상의 숫자 기호를 합성한 것에 의한 구분수로서는

$$1,259\text{문자기호} \times 126\text{숫자기호} = 158,634$$

그러므로 張一世表의 기입어수(구분수) 4,455에 비하면

$$158,600 \div 4,455 = 35.6\text{배가 된다고 하였다.}^{63)}$$

이러한 비교를 보면 일견 이재철씨표가 개별성이 많고 전개성이 많은 것같이 보이거나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 理由는 이재철씨가 전화번호부나 漢字사전에서 아무리 널리 빈도 조사를 하였다 하더라도⁶⁴⁾ 결국은 子音 14字와 母音 10字를 아라비아 숫자 1에서 9까지에 배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관계로 중복이 안 생길 수 없게 되며, 그것을 피하려고 애 쓸 경우에는 前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子音에 대하여 숫자 두자리를 배당하게 되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또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子音이나 母音에 대한 이재철씨의 빈도조사는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⁶⁵⁾

62) 이재철,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 Op. Cit., p. 237.

63) 이재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저자 기호표연구. Op. Cit., p. 17-18.

64) 이재철, 동서저자기호법의연구. Op. Cit., p. 16-28.

65) 참고로 이재철씨의 저자기호표 제2표를 여기에 인용하던 다음과 같다.

子音	子音	母音	母音
1 ㄱ(ㄱ)	22 ㄷ(ㄷ)	1 ㅏ	3 ㅓ(ㅓ)
21 ㄴ	23 ㄹ	2 ㅓ(ㅓ, ㅓ)	4 ㅕ(ㅕ)

이재철씨가 제1표 및 제2표에 이어 近來에 더 발전시켰다고 하는 제3, 4, 5 및 6표를 비교하여 보면 앞에서 筆者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 아홉자라는 제한된 숫자에 14가지의 자음을 배당한 관계로 특별한 빈도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며, 모음에 대한 것 역시 같은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여기에 여섯가지의 이재철씨표를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음표

제1표

ㄱ(ㄱ, ㄱ)	1
ㄴ(ㄴ)	2
ㄷ(ㄷ, ㅌ)	3
ㄹ	4
ㅂ(ㅂ, ㅃ)	5
ㅅ(ㅅ)	6
ㅇ	7
ㅈ(ㅈ, ㅉ)	8
ㅊ	9

제2표

ㄱ(ㄱ)	1
ㄴ	21
ㄷ(ㄷ)	22
ㄹ	23
ㅂ	3

3 ㅁ	7 ㅅ (ㅆ)	5 ㅊ
4 ㅂ (ㅃ)	81 ㅈ	6 ㅊ (ㅊ, ㅊ, ㅊ)
5 ㅅ (ㅆ)	82 ㅋ	7 ㅈ (ㅈ, ㅈ, ㅈ, ㅈ)
6 ㅇ	83 ㅌ	8 ㅡ (ㅡ)
	84 ㅍ	9 ㅣ
	9 ㅎ	

이 표를 보면 本文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子音 14字와 母音 10字를(실제는 複合母音때문에 10字가 훨씬 넘는다) I에서 9까지의 숫자를 배당하자니 이상과 같은 恣意한 배당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이재철씨의 제1표는 이보다 더 간단한 것이므로 배당은 쉬우나 더욱 많은 중복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특별히 子音과 母音 빈도조사 없이도 어느정도 고르게 배당할 수 있다.

日(日)	4
入(入)	5
〇	6
ス(ス)	7
エ	81
ク	82
ト	83
コ	84
ホ	9
제3표(실용형 가표)	
ㄱ	1
ㄴ	19
ㄷ	2
ㄹ	29
ㅁ	3
ㅂ	4
ㅅ	5
ㅇ	6
ㅈ	7
ㅊ	8
ㅋ	87
ㅌ	88
ㅍ	89
ㅎ	9
제4표(실용형 까표)	
ㄱ	1
ㄲ	18
ㄴ	19
ㄷ	2

ㄱ	28
ㄴ	29
ㄷ	3
ㄹ	4
ㅁ	49
ㅂ	5
ㅅ	59
ㅇ	6
ㅈ	7
ㅊ	79
ㅋ	8
ㆁ	87
ㅌ	88
ㅍ	89
ㅎ	9

제5표(아이디얼형 가표)

ㄱ	1
ㄴ	19
ㄷ	2
ㄹ	29
ㅁ	3
ㅂ	4
ㅅ	5
ㅇ	6
ㅈ	7
ㅊ	8
ㅋ	87
ㆁ	88
ㅌ	89

ㅎ	9
제6표(아이디얼형 까표)	
ㄱ	1
ㄲ	18
ㄴ	19
ㄷ	2
ㄸ	28
ㄹ	29
ㅁ	3
ㅂ	4
ㅃ	49
ㅅ	5
ㅆ	59
ㅇ	6
ㅈ	7
ㅊ	79
ㅋ	8
ㆁ	87
ㄷ	88
ㅌ	89
ㅎ	9

이상과 같이 이재철씨는 여섯가지 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표에서 제6표까지에 배당한 아라비아 숫자 전부를 기준으로 배정한 자음 여섯가지를 나열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종합표를 보면 筆者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무런 통계조사 없이도 쉽게 숫자가 배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음 14자를 1에서 9까지에 배당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14子音中 5자는 두자리 숫자를 배당하지 않을 수 없

기호	제一표자음	제二표자음	제三표자음	제四표자음	제五표자음	제六표자음
1	ㄱ(ㄱ, ㅋ)	ㄱ(ㄱ)	ㄱ	ㄱ	ㄱ	ㄱ
18				ㄱ		ㄱ
19			ㄴ	ㄴ	ㄴ	ㄴ
2	ㄴ(ㄴ)		ㄴ	ㄴ	ㄴ	ㄴ
21		ㄴ				
22		ㄴ(ㄴ)				
23		ㄴ				
28				ㄴ		ㄴ
29			ㄴ	ㄴ	ㄴ	ㄴ
3	ㄴ(ㄴ, ㄷ)	ㄴ	ㄴ	ㄴ	ㄴ	ㄴ
4	ㄴ	ㄴ(ㄴ)	ㄴ	ㄴ	ㄴ	ㄴ
49				ㄴ		ㄴ
5	ㄴ(ㄴ, ㄷ)	ㄴ(ㄴ)	ㄴ	ㄴ	ㄴ	ㄴ
59				ㄴ		ㄴ
6	ㄴ(ㄴ)	ㅇ	ㅇ	ㅇ	ㅇ	ㅇ
7	ㅇ	ㄴ(ㄴ)	ㄴ	ㄴ	ㄴ	ㄴ
79				ㄴ		ㄴ
8	ㄴ(ㄴ, ㄷ)		ㄴ	ㄴ	ㄴ	ㄴ
81		ㄴ				
82		ㄴ				
83		ㄴ				
84		ㄴ				
87			ㄴ	ㄴ	ㄴ	ㄴ
88			ㄴ	ㄴ	ㄴ	ㄴ
89			ㄴ	ㄴ	ㄴ	ㄴ
9	ㅎ	ㅎ	ㅎ	ㅎ	ㅎ	ㅎ

게 되기때문에 자연히 우리 나라 말 중에서, 특히 姓중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5자에 두자리 숫자를 배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섯가지의 표 중에서 대체로 기호 한자리만이 주어진 子음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 호	子 음
1	ㄱ
2	ㄴ

3	ㄱ
4	ㄴ
5	ㄷ
6	ㄹ
7	ㅁ
8	ㅂ
9	ㅅ

따라서 14子音中에서 빠진 다섯자는 다음과 같다.

ㄴ ㄷ ㄹ ㅁ ㅂ

이 다섯자는 누가 보아도 우리 나라 사람의 姓이나 또는 일반 회화중에서 까지도 흔히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새삼스러이 통계조사가 없더라도 알 수 있다. 筆者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무런 통계조사가 없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철씨가 그의 연구논문에서 말한 바 통계는⁶⁶⁾ 매우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종합표(편이상 筆者가 그렇게 부르기로 하였다)를 보면 이재철씨가 조사했다고 하는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인지 제 3표에서부터는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미 筆者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재철씨 스스로가 제2표는 제1표의 통계조사가 미비한 것을 시정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제3표 이후의 것에 대한 것은 아무런 변명이나 증거나 또는 통계(실제로 아무런 효과는 없지만) 없이 바꾸어 놓은 理由는 무엇인가?

즉 제2표와 제3~6표와의 차이를 대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제 2 표		제 3~6 표	
ㄴ	21	ㄴ	19
ㄷ	22	ㄷ	2
ㄹ	23	ㄹ	29
ㅁ	81	ㅁ	8

66) 이재철. 동서저자 기호법의 연구. p. 17.

6	나(ㄴ, ㄷ, ㄹ)
7	ㄷ(ㄴ, ㄷ, ㄹ, ㅌ)
8	ㅡ(ㅣ)
9	ㅣ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괄호 안에 들은 母音은 부득이 그 앞에 있는 母音에 배당된 기호를 같이 써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기호의 특징인 저자명 가나다順 배열이란 것에서 더욱 많은 거리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어떤 저자기호표에 있어서나 약간의 가나다順 또는 ABC順 배열이 무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문제이지 마구 뒤섞들어 놓게 된다면 저자기호로서의 특징을 상실하게 되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재철씨는 그분이 자랑하듯이 표가 간단하여 記憶하기에 편하므로 일일이 표를 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점⁶⁷⁾이 특색이며 筆者도 이에 대하여서만은 같은 意見을 表한 바 있지만,⁶⁸⁾ 제3표 이후의 것은 母音記號로서 子音 ㄱ ㄷ ㅌ 이외에 쓰이는 것, ㄱ ㄷ 다음에 쓰이는 母音기호 또는 ㅌ 다음에 쓰이는 母音記號 등등으로 세분하였으므로 표를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한 특색마저도 喪失하고 말았다.⁶⁹⁾ 이재철씨가 가장 主張하는 이재철씨표의 특징, 즉 분석적 합성식이 열거식표보다 나왔다고 하는 것이 열거식표는 記號를 매길 때 일일이 表를 들추는 勞力과 시간의 소비를⁷⁰⁾ 非難하였는데, 지금 와서 자기 자신의 표를 그렇게 만들지 않을 수 없게

67) Ibid., p. 26.

68) 張一世. 學校圖書館運營指針. 서울, 新書閣, 1964. p. 108.

69) 이재철씨가 소위 “實用型”으로 만든 제3표의 母音記號는 다음과 같다.

모음기호 (ㄱ ㄴ ㄷ 다음에)	ㄱ ㄷ 다음에의 모음기호	ㅌ 다음에의 모음기호
ㅏ 1	ㅏ 1	ㅏ 1
ㅑ 2	ㅑ 2	ㅑ 2
ㅓ 3	ㅓ 3	ㅓ 3
ㅕ 4	ㅕ 4	ㅕ 4
ㅗ 5	ㅗ 5	ㅡ 5
ㅛ 6	ㅛ 6	ㅣ 6
ㅜ 7	ㅡ 7	
ㅠ 8	ㅣ 8	
ㅡ 9		

70) 이재철. 구조표에 입각한 한국저자기호표 연구. Op. Cit., p. 10.

되었다는 사실은 결국 筆者가 지적한 바와 같이 너무도 단순한데서오는 重複을 피할 길이 없어 부득이 그렇게 더 展開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지만 이재철씨표로서의 가장 큰 長點에서부터 退步하는 結果를 가져오고 말았다.

그 다음으로는 음절철문자 1,259字에 대한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재철씨는 이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필자(이재철씨를 말함)가 국립도서관에서 분류사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아동문고 도서의 도서기호(저자기호)를 姓첫자만 한글로 적어준 일이 있는데 배열, 출납에 별 지장을 느끼지 못하였다. 한편 연세대학교에서 저자기호로 성명 석자를 다 적어주고서도 출납이 가능한 것을 보면 한글(音節綴)한자 쯤의 배열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하였다.⁷¹⁾

이것이 이재철씨가 姓 한자를 저자기호의 첫자로 채택하는 理由인데 그가 소위 경험했다는 국립도서관에서의 아동 도서가 몇권이었으며, 하루의 출납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묻고 싶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의 경우 “출납이 가능”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말은 참으로 한심한 말이다. 한글대신에 漢字를 썼어도 “출납은 가능”한 것이다.

이재철씨는 또한 그의 최근 논문에서 말하기를 가령 저자기호가 「김16」일 경우 “김”으로 좁게 압축된 부분까지 한달음에 접근하여 찾게 된다”⁷²⁾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에는 더욱 아연 실색하게 된다. 그 이유는 그가 주장한 바 1,259字의 음절철문자 중의 한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한달음에 접근할 수 있던 말인가? 접근할 수 있는 율은 1,259分之1인 것이다.

이에 비하면 筆者의 저자 기호는 단지 子音 14字만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은 숫자 이므로 그야말로 국민학교 어린이 1학년생이라도 손쉽게 목적하는 저자기호에 접근할 수 있게 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재철씨는 筆者의 表보다 35.6배나 개별성이 많은 것은 알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利用하는 면에서 筆者表보다 30倍, 아니 300倍 이상이나 非能率的이라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그저 도서의 배열이나 출납을 한가하게 낮잡자는식으로 하는 곳이면 모르거니와 일을 잼사게 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출

71) 이재철. 동서저자기호법의 연구. Op. Cit., p.12.

72) 이재철.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 Op. Cit., p.241.

납이 가능”할 정도의 움직임으로서는 “가능한한 빠르고 정확하게”라는 도서관 봉사의 목표에 전연 미달인 것이다.

더욱이 이재철씨 자신이 지적한 것과 같이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區分의 甚大性이 일부 우리 나라 도서관인이 생각하는 것 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⁷³⁾라는 사실에 筆者는 全的으로 同意하는 바이다. 이재철씨의 이말은 결국 이재철씨 자신이 주장하는 158,634의 구분수가 있다는 이재철씨의 제2표도 그리 필요치 않다는 주장밖에 안된다.

筆者는 「신속과 정확」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도서기호를 만드는데 있어서 子音 한자만을 채택하고 있는 理由가 「신속과 정확」을 보다 能率的으로 하기 위하여서이다. 子音 한자만을 채택한 筆者의 表의 결점을 들기 위하여 이재철씨는 筆者가 전연 의도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可笑로운 일이다.

이재철씨는 그의 논고에서 “첫번째 기호를 음절형이 아니고 자모형으로 취한다는 것은 두번째 이하의 기호도, 숫자기호에 의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자모형으로 취할 것을 전제로 하게된다”라고 말하고 그 예로

ㄱ ㄱㄱ ㄱㄷㄱ ㄱㄷㅂㄱ ㄱㄷㅂㅋㄱ 등등으로 예시하였다.⁷⁴⁾

이러한 예시는 얼토당토않은 예시이다. 필자는 어디까지나 子音 한字에 숫자를 겹쳐서 사용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러한 거듭된 子音을 연결하여야 할 필요가 전연 없다.

이재철씨는 이문제와 결부하여 더 인용하기를 한글의 풀어쓰기에 대한 국문학자들의 견해와 모아쓰기에 대한 견해를 들고 결론적으로 “張一世씨의 말과는 정반대로 모아쓰기를 지지하고 있다”하였다.⁷⁵⁾

이러한 見解를 피력한 鄭寅燮교수나 張東煥교수 吳圀哲교수 및 李昌兩전임장사의 主張은 子母한자만을 記號로 쓰는 경우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재철씨 자신이 예시한 바와 같이 子母를 여러자 연결하여 하나의 文章을 이룰 경우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견해인 것이다.

73) 이재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저자기호표연구. Op. Cit., p.18.

74) 이재철.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 Op. Cit., p.236.

75) Ibid., p. 238.

이 점에 대하여는 國文學者들간에서 많은 研究가 있을 것이므로 筆者가 可否를 論할 필요는 없으나 文章일 경우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性習으로서는 모아 쓴 것이 풀어 쓴 것보다 보기에나(말하자면 視覺的으로) 또는 읽기에 편한 것은 筆者도 同感이다. 이 문제는 筆者의 말과 하나도 정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즉, 한자의 記號로서 볼 때는 子母 한자와 음절철 한자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음절철 한자인 경우 획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子音 한자보다 식별하기에는 배알하기에 더딘다는 점에는 이재철씨도 是認하고 있지 않은가? 76) 단 한가지 이재철씨 주장에 筆者도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점은 발음성에 관한 것인데 이 문제는 다음 항목에서 다시 言及하겠다.

c. 發音性(Pronounceability)과 多意性(Ambiguity)

음절철 한글 문자와 子音 문자의 발음성문제는 매우 그럴사한 문제이다. 읽고 발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호법에 있어서 발음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E.J. Coates씨가 주장한 것을 인용하지 않고서라도 筆者가 全的으로 同意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筆者로서도 저자기호로 쓰이는 문자가 발음성에 있어서도 편리하도록 되어야 더 理想的이라는 점도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기호로서의 단순성 및 간결성과 발음성 두가지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두가지가 모두 兼備되어 있는 기호라면 두 말할 필요가 없으나, 그 두가지 중 어떤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채택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칠 때 누구나 前者를 취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그 理由는 이미 前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 다시 논하지 않겠다.

그러나 음절철 문자와 子音문자와의 發音성에 대하여 고려해 볼 때 이재철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발음성에서 子音문자가 음절철문자에 별반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 理由로서는 저자기호에서 쓰이고 있는 子音 문자가 한자로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때문이다.

76) Ibid., p. 241 & 244.

이재철씨는 子音문자의 발음이 두 음절로 되어 있어서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역 더큰 비읍 키읔 기역”과 같이 문자는 다섯인데 음절이 열이 된다고 말하였는데⁷⁷⁾ 이것은 子音을 연속적으로 쓸 경우를 말한 것이고 한자만을 기호로 사용할 때에는 발음하기 편하도록하기 위하여 전연 불필요한 모음을 붙이는 것보다는 훨씬 배열하는데 있어서나 확인하는데 있어서 간편하다. 실례를 든다면 ㄱ215(기역 이일오)나 가215(가 이일오) 또는 ㄱ215(기역 이백십오)나 가215(가 이백십오)와의 사이에 얼마나 큰 지장이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이재철씨 자신이 이야기 한 것처럼 한글의 자모를 달달 외우고 있다면 자음 한자를 발음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을 것이다.

筆者가 알기에는 이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기호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아라비아 숫자를 제외한다면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기호로는 로마자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26자의 로마자 가운데 두 음절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글자만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A(에이), F(에프), H(에이치), I(아이), J(제이), S(에스), V(브이), W(더블유), X(엑스), Y(와이), 그리고 Z(제트)의 열한자나 된다. 이 중에서 V, W, X, Y, Z의 다섯자는 연속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부르는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인가? 그것이 부르기 어려워져서 기호로서 쓰일 가치가 없다는 말은 筆者는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나 들은 바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불과 열네자 밖에 안되는 한글 자음을 우리들이 부르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재철씨가 염려하듯이 기호로서 사용할 가치가 없단 말인가? 이미 筆者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나마 자음을 여러자 연결할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단 한자만을 기호로 채택하는데 있어서는 전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多意性이다. 이미 앞에서도 약간 언급한 바 있지만 多意性이란 결국 배열에서의 혼란을 뜻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였으므로 이곳에서는 별반 언급을 회피하거나와 자음 문자 가

77) Ibid., p. 237.

문에서 모양이 비슷한 外國文字와의 혼돈문제는 일견 그럴듯하게 생각된다.

이재철씨는 그의 논고에서 특히 한글 자음문자중 ㅇ(이응)과 로마자중 O字를 예로 들고 독자들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는데⁷⁸⁾(그 밖에 비슷한 ㄱ(기역)과 로마자의 J, ㄴ(니은)과 로마자의 L字 등도 같은 예이지만)이 염려는 순전히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理由는 독자들이 도서를 청구할 때에는 어느 도서관에서나 마찬가지로 도서청구용지에 著者, 書名, (청구기호는 물론이지만)등 그 도서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主要사항을 記述하여서 청구하므로 그것에 따라 西洋書인가 東洋書인가는 거의 완전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재철씨는 筆者의 저자기호로서 혼돈되기 쉬운 것을 예시한 가운데 “羅運榮의 音樂形式論에 대하여 ㄴ32ㅇ”과 같이 저자기호에 저자기호(서명 첫자에서 딴기호)까지 덧붙여 주고도 그것이 로마자에 의한 저자기호인지 한글에 의한 저자기호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 글 역시 筆者가 바로 앞에서 지적한 사실을 전연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단지 저자기호 만을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비단 本人의 저자기호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재철씨의 저자기호인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이재철씨가 그의 저자기호 사용방법을 설명한 가운데 인용된 것을 여기에 다시 인용한다면 李光洙의 無情에 대한 저자기호 및 저작기호로서 이16ㅁ, 有情에 대한 것을 이16ㅇ, 사랑에 대한 것을 이16ㅅ이라 하였고⁸⁰⁾, 世界文學全集에 대한 저자기호로는 세14로 되어 있는데 이상 예시한 것을 볼 때 레더링이나 또는 타자기를 사용하였을 경우라도 이16ㅇ(이 일육 이응) 이116ㅇ(이 일일육 이응)으로, 또는 세14ㅇ(세 십사 또는 세 일사)가 서114(서 일일사)등으로도 보일 수 있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이16ㅇ인 경우에는 그야말로 로마자로 O116O (오 일일육 오 또는 제로 일일육 제로)로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78) Ibid., p. 234—5.

79) Ibid., p. 234.

80) 이재철. 동서저자기호법의 연구. Op. Cit., p.34.

바와 같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한글 字形에 따른 로마자와의 혼돈문제는 이재철씨가 염려하는 것 처럼 그리 심각한 문제는 되지 못한다.

4. 이재철씨의 저자기호와 筆者의 저자기호의 배열에 관한 비교

다음으로는 배열문제를 여기서 고려해 보기로 한다.

筆者가 주장하기를 “음절철형에는 획수가 비교적 많은 것, 또는 모양이 서로 비슷한 것이 있어서 판독에 착오를 가져와 배열과 검출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비판하였다”는 글을 인용하고, 이재철씨는 계속하여서 “張씨의 한글 실력에 대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석출 다음에 계속하여서는 “때로 필체로 보아 그렇게 보일 경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⁸¹⁾라고도 하였다. 더욱 이해하기 곤란한 것은 한글을 전년 다음에 “비교적 획수가 있는 “최”를 “죄”로, “원”을 “뮐”으로 誤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그 이유는 저자기호는 성명을 대상으로 매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뮐”이란 음절구성은 특별한 경위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이다. 설혹 “최”의 초성 “ㄷ”의 웃점이 마멸되어 살아져나가 “죄”자 같이 보일 경우에는 그것이 “최”자가 아닌가 하고 재확인하게 되어 오히려 그 착오를 예방하게 될 것이다”⁸²⁾라고 하였는데, 이 글에는 두가지의 큰 모순을 이재철씨 자신이 토로하고 있다.

첫째는 “저자기호는 성명을 대상으로 매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을 “뮐”으로 “최”를 “죄”로 誤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인데, 이재철씨는 자기가 이렇게 버젓이 이야기하고도 筆者의 제2의 저자기호표에 대하여 “그러나 여전히 단체명과 관할구명, 표제 등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이 점이 고려되고 있지 않는 한, 12만5천명 아니라 100만명, 아니 1,000만명의 인명을 대상으로하여 표를 만들었다 해도 이 기입어 분포의 불합리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⁸³⁾라고 하여 이재철씨 자신이 이야기 한 것을 스스로 否認하고 있다.

둘째는 “최”의 초성 “ㄷ”의 웃점이 마멸되어 살아져 나가 “죄”자 같이 보

81) 이재철.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쓰기 문제에 대하여, Op. Cit., p.237.

82) Ibid., p. 237—238.

83) 이재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저자 기호표 연구. Op. Cit., p. 24.

일 경우에도 그것이 “최”자가 아닌가 하고 재확인하게 되어 오히려 그 착오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이 글은 이재철씨가 정신이 바른 사람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도대체 도서를 출판하는 사람을 學者로 알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재철씨는 “저자기호법은 기계적인 배열을 기하기 위한 수단”⁸⁴⁾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단체명과 관할구명(국명, 地名), 표제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순과 무리가 있어서 채택할만한 것이 못된다”⁸⁵⁾고 극구 비난한 이재철씨가 “최”자가 姓이 아니니 재고해서 “최”로 보게 될 것으로 말하는 이재철씨도 그렇거니와 출판수가 한국의 모든 姓氏의 大家일 수는 없으며, “최”자가 기본표목의 첫자로 한번 아니라 백번이라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망각하고 있다. 이재철씨의 말을 따르자면 출판수가 잘 이해하지 못할만한 字가 저자기호로 쓰였을 경우에는 再考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250餘姓 밖에 안되는 우리나라 姓이라 할지라도 筆者가 무식하여서 일러지는 모르나 처음 보는 姓 또는 매우 드물게 보는 姓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다. 이재철씨에 따르면 海氏는 매우 흔하지 않으니 출판수가 河氏로 볼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倉氏는 張氏나 차氏로 본단 말인가? 순전히 기계적으로 배열하거나 찾는 역할을 담당하는 출판수에게 이재철씨가 이야기하는 復號化를 기대한다는 것은 言語道斷인 것이다. 왜냐하면 한 出版物의 基本記入語를 정한다는 것이 專門職 업무에 속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일인데 그러한 전문적인 일이 출판수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새삼스러이 전문적 사서를 양성하여야 할 必要性도 느끼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筆者는 이재철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⁸⁶⁾ 한글 중에서 획수가 많은 글자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글자로서 잘못 배열되기 쉬운 글자를 筆者의 著書에서 言及하였는데, 이 일에 대하여 이재철씨는 “張씨의 한글 실력에 대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수준이건대 초과 즈음 비슷하다고 보며 口과

84) 이재철.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 Op. Cit., p. 240.

85) 이재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저자 기호표 연구. Op. Cit., 23.

86) 이재철.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 Op. Cit., p. 237.

○을 같이 봐질 때가 있을가 하고 말이다.”⁸⁷⁾라고 비판한 바로 그 말에 계속하여서 “때로 필체로 보아 그렇게 보일 경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것”이라고 이재철씨 자신이 是認하므로써 잘 못 배열될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筆者가 지적한 비슷한 모양을 가진 글자가 서로 잘못 배열될 수 있다는 말인데, 筆者가 지적한 비슷한 글자는 다음과 같다.

회와회, 흥과흥

ㄷ과 ㅈ을 자음으로 하는 글자 전부

ㅁ과 ㅅ을 자음으로 하는 글자 전부

ㄱ과 ㅋ을 자음으로 하는 글자 전부

ㄴ과 ㄷ을 자음으로 하는 글자 전부

ㄷ과 ㅌ을 자음으로 하는 글자 전부

ㅌ과 ㄹ을 자음으로 하는 글자 전부

ㅁ과 ㅂ을 자음으로 하는 글자 전부

筆者가 잘못 배열되기 쉽다고 지적한 理由는 印刷나 또는 타이프라이터에 의하여 찍혀진 것, 즉 明白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찍혀진 것을 이야기 한 것 보다는 책 등(스파인)에 쓰여지거나 또는 붙여지는 레이블에 표시되는 저자기호를 특히 지적한 것으로, 書架上에서의 도서의 배열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게 되기때문이다. (打字機에 의하여 찍혀진 음절철문자 중에서도 사실상 위에서 든 例중 한자 한자식만을 볼 때 혼동될 경우가 많다.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앞뒤로보아 알게되는 것 뿐이다.) 도서관이면 누구나가 빠져리게 느끼다시피 책등에 표시하는 청구기호는 대개가 좁은 곳에 표시되는 것이므로 매우 선명하여야하고, 획수도 가능한한 적어야만 뚜렷이 보이는 것인데, 그 좁은 곳에 표시하는 관계로 글자의 모양이나 형태가 印刷하는 것 같이 선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時日이 지남에 따라 鮮明度도 낮아지게 되고, 또 자주 손이 닿는 곳이어서 글자의 모양마저도 뚜렷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며, 이에 따른 도서의 배열의 잘못은 도서 배열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다시피 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87) Ibid., p. 237.

획수가 많은 글자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때문에 능률의 低下는 말할 필요도 없으며, 많은 귀중한 도서가 잘 못 배열된 탓으로 그 값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 여러 도서관에서 定期的으로 실시하고 있는 檢書時에 수많은 잘못 배열된 도서를 發見하게 되는 것으로서도 立證되고 있는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本人이 梨大에서 실시한 檢書結果를 숫자적으로 이곳에 발표하지는 못하나 每年 여름 방학을 이용한 검서에서 총 장서량의 約 1%내지 0.5%에 해당하는 도서가 잘못 배열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筆者의 한글 실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 보다 뚜렷하게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筆者가 지적한 바 저자기호에서 획수가 많은 글자 때문에, 또는 모양이 비슷한 글자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는 도서에 표시된 청구기호에 따른 도서의 배열문제를 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書架目錄의 排列에서도 역시 있게 된다. 단지 타자기에 의하여 청구기호가 매겨진 경우라면 다소 鮮明度 관계로 도서 배열보다는 나을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도서관의 경우 漢字를 목록에서 써야하는 관계로 手書에 의하여 목록이 작성되므로 청구기호도 手書로 이루어질 경우 도서의 배열에서와 같은 잘못된 배열은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筆者가 실제로 실험해 본 結果로 뚜렷이 나타났는데, 無作爲로 한국인 著者名 500명을 추출하여, 이에 해당하는 筆者의 저자기호와 이재철씨의 저자기호(제2표 사용)를 각각 카아드에 매겨 놓고, 이의 배열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함과 동시에 잘못 배열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이에 앞서 500명의 저자명에 대한 저자기호를 매기는데 있어서 筆者의 저자기호표에서는 중복이 나오지 않았으나 이재철씨의 제2표저자기호표에 따른 것은 26명이 같은 저자기호가 나오게 되어 부득이 더 전개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 비율은 5%에 해당한다. 이것은 이미 第3章 a節「단순성과 간결성」에서 지적된 것이지만 통계상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參考로 이에 적어 둔다.

筆者의 저자기호만이 기입된 500매의 카아드와 이재철씨의 저자기호(제2표)가 기입된 카아드 500매를 배열하는데 있어서 평균된 결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中學校, 高等學校 그리고 大學校圖書館學科 졸업생으로서 2年 이상 도서관에 근무한 사람들에게 각각 세사람씩 배열을 시켰던 바 다음과 같은 平均值 結果가 나타났다.

區 分	張一世 저자기호	이재철씨 저자기호	
中校 졸업생	배열所要時間	49분	67분
	잘 못 배열	0枚	3枚
高校 졸업생	배열所要時間	41분	52분
	잘 못 배열	0枚	2枚
大學 졸업생	배열所要時間	46분	59분
	잘 못 배열	0枚	3枚

이 表를 보면 배열에 所要되는 시간에서 이재철씨 저자기호가 筆者의 저자기호 보다 맨 위에서는 約 37%, 다음이 27%, 그리고 끝에서는 28% 더 소요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잘못 배열되는 것에서는 筆者의 것에서는 全無한데 비하여 이재철씨의 것은 약 0.5% 정도의 잘못배열이 나타났다. 따라서 平均的으로 이재철씨의 저자기호 배열이 筆者의 것에 比하여 약 31% 시간이 더 걸리면서도 전체의 0.5%의 잘못된 배열이 있게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실험에 사용된 글자는 펜으로 정서한 것으로서 글자의 크기는 活字 호수로 볼 때 3호 내지는 4호 정도의 크기였음을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책등에 쓰여진 것에 비한다면 훨씬 선명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상과 같은 실험 결과로 보아 每日 400~500책 또는 그 이상 대출(館內이건 館外이건 간에)하는 도서관의 형편을 살펴 본다면 얼마나 막대한 勞力의 損失을 입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만일 1年동안 開館日數를 300日로 잡고 하루 평균 500책을 대출하는 곳이라고 가정할 때, 위에서 例示한 실험 결과로 보아(실제로는 책이 카아드 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에 留意하기 바란다) 이재철씨의 저자기호를 사용한 곳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배열에 所要

되는 人力이면 筆者의 저자기호로 된 도서는 每日 650책 이상을 대출 할 수 있다는 結論이 되며(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1年동안 45,000 책을 더 다룰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또 달리 表現한다면, 이제철씨 저자기호로서 300일 所要되는 것이 筆者의 저자기호를 사용함으로써 200일이면 다 끝낼 수 있고, 筆者表를 사용하면 가령 人力이 10名 所要되는 것이 이제철씨表를 사용한다면 13名이 필요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 숫자의 比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자기호가 도서나 카아드의 배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5. 結 言

대체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두가지의 저자기호에 대하여 비교적 세부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비교하여 보았다.

지금까지의 비교로 보아 두 가지 저자기호의 특징과 결함도 명확하게 들어났으므로 저자기호로서 어떤 것을 채택하여야 할 것인가도 판가름 난 셈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표의 長短點을 綜合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제철씨의 저자기호는

첫째, 저자 기호로써의 생명인 단순성과 간결성 및 전개성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둘째, 분석적 합성식에서 오는 기호의 制約으로 인하여 기호의 중복이 불가피하고, 중복을 피하려고 할 경우 기호가 길어지게 된다.

셋째, 획수가 많은 관계로 多惑性을 除去할 수 없다.

넷째, 음절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관계로 배열에 많은 시간이 所要된다.

다섯째, 이제철씨의 소위 3, 4, 5, 6표를 사용할 경우 그 표의 가장 특징이었던 사용의 간편, 記憶의 容易性마저 상실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결함이 있는 反面 필자의 표는 다음과 같은 長點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저자 기호의 生命인 단순성, 간결성 및 전개성이 가장 풍부하다.

둘째, 세밀한 전개가 필요한 곳에는 세밀한 전개가 되어 있다.

셋째, 책을 찾거나 쫓는데 훨씬 時間과 勞力이 절약된다.

이상과 같은 比較에 따라 이재철씨의 주장과는 달리 筆者의 표가 더욱 實用性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철씨의 저자기호표가 전연 쓸모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재철씨의 저자기호는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筆者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 개발하였다는 제3~6표 보다는 제2표가 오히려 나왔다고 생각되므로 이재철씨 표를 사용할려고 한다면 筆者로서는 제2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筆者가 만든 저자기호표에 대하여 많은 研究를 하여 주신 이재철씨에게는 再三 감사한 뜻을 표하고 싶다. 緒言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健全한 비평은 斯界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단지, 순전히 學術的인 진전한 비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筆者의 저자기호표에 대하여 筆者 자신이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이재철씨가 지적한 단체명, 관할구명 및 표제 등에 대한 고려가 筆者의 저자기호표에 어느정도 더 반영되어야 하겠다는 점에 대하여는 본인 스스로가 이미 느끼고 있는 점이다. 이 점 이재철씨가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고 싶다.

이 밖에도 이재철씨가 그의 몇몇 논고에서 舉論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도 言及하고 싶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저자기호에 관한 것만을 다루기로한 관계로 그밖의 주제에 대한 것은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끝으로 한가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재철씨도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筆者도 筆者가 만든 저자기호표에 대하여 全的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研究, 검토 되어야 하며,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위에서도 이야기 한 바와 같이, 學術이 발전되고 向上되기 위하여는 健全한 비평이 따라야 하거니와, 비평이 비난으로 바뀌어서는 곤란하다. 오늘 날 우리들이 보는 바와 같은 學術의 발전은 어느 한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은 아니다. 남이 이룩한 것을 토대로하여 그 보다 더 발전된 學術을 만 사람이 이룩하였고 또다시 그것을 토대로 하여 더 발전된 學術을 개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分野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相扶相助함으로써 비로소 발전

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남이 한 일에서 비록 결함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의 건전한 비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험뚱고 비난하는 따위의 불건전한 비난으로서는 발전인커녕 退步만이 있고 분쟁만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모든 分野에서도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특히 우리 도서관계나 도서관학계에서 그러한 건전한 風土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지기만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맺는 바이다.

A Study on Author Notation in Korea

Il Se Chang*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analytico-synthetic systems and enumerative systems which have been used in Korea was dealt.

The writer tries to compare the adaptability of both systems for Korean author notations. The following topics are discussed in detail:

- 1) The objectives of the book numbers.
- 2) Korean alphabet as author numbers.
 - a) Brevity, simplicity and the possibility of expansion.
 - b) A study on the defects of the analytico-synthetic notation devised by Professor Jai Chul Lee.
 - c) A study on the pronounceability and the ambiguity.
- 3) A comparative study on filing efficiency of the Professor Lee's author marks and the writer's.

* Central National Library.